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 연준, 추가적 경기부양 가능성 강조

□ 지난 8월 27일 미 연방준비은행 벤 버냉키(Ben Bernanke)의장은 둔화되고 있는 경제회복세를 부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.

- 세계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은 연준이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장기증권, 특히 미 국채를 추가적으로 매입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함.
- 그러나 그는 최근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냄.
- 경기부양을 위해 단기금리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조치들이 많지 않고, 따라서 비전통적인 방법을 통한 경기순응적 통화정책(monetary accomodation)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□ 2/4분기 미국 경제는 추정치보다 낮은 1.6% 성장에 그쳤고 실업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, 버냉키 의장은 장기적인 재할인을 인하 등의 부양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- 최근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소비와 민간투자 부문에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경기부양이 중단될 경우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며, 주택시장은 7월에도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실업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함.
-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경기 둔화와 실업률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소비와 민간투자의 성장세가 긍정적이며,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낮고 무역수지 악화도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함.
-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여전히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으나 장기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부양효과에는 의문이며, 장기자산의 추가매입을 통해 0에 가까운 단기금리를 시장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한다는 신호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따를 수 있음.
- 버냉키 의장은 은행의 재할인율을 인하하거나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대안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, 장기적 경제전망이 어둡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.

(Wall Street Journal, 8/27)